

# 추석을 더 풍성하게 해줄 와인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이 코 앞인데 올해는 열대야로 에어컨을 켜고 가족들과 와인잔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번 추석의 첫 잔은 누가 뭐래도 화이트 와인이다. 전 같이 기름진 명절 음식에 산도 높은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30도를 넘는 추석 더위를 식혀줄 최고의 아이템이다.

먼저 소비뇽 블랑이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소비뇽 블랑'은 믿고 마신다는 뉴질랜드 말보르 지역에서 만들었다. 라파우라 스프링스 와이너리의 기본급인데 지난 2021년 와인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 자몽과 열대과일 등 과일향에 산도도 바삭거리



왼쪽부터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캔달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 몬테스 퍼플 앤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 /각 수입사 취합

기 보단 상큼하게 어우러져 식전에 와인만 마시기도 좋고, 해산물이나 나물, 전과 내놔도 어울린다.

'베라몬테 레세르바 소비뇽 블랑'은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의 소비뇽 블랑 100%로 양조했다. 베라몬테는 미국 나파밸리 프리미엄 와인 컨테스타를 설립한 어거스틴 후네우스가 고향인 칠레로 돌아와 카사블랑카 밸리의 훌륭한 테루아를 보고 설립한 곳이다. 백도에 허브,

감귤류의 향과 함께 미네랄 풍미도 느낄 수 있으며, 균형이 잘 잡힌 산도가 매력적이다.

화이트 와인 정통파의 선택은 샤도네이다.

'덕흔 디코이 샤도네이'는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해 입안에서 바닐라향과 함께 감귤 등 과일향이 풍부하고, 미네랄 풍미가 생생한 산도와 잘 어우러진다. 디코이는 '와인에호가들을 위

한 럭셔리 데일리 와인'이라고 불릴 만큼 덕흔의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 어린 빈티지에도 마시기 편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매칭하기 좋다.

명절 상차림에 고기가 빠질 리 없다. 갈비찜이나 산적 등 양념이 강한 육류 요리에는 양념 맛에 밀리지 않을 묵직한 탄닌의 레드와인이다.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은 와인은 몰라도 다 안다는 몬테스의 와인이다. 1987년 몬테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와인이자 칠레에서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으로 기록되는 와인이다. 다채로운 베리류에 시가박스, 바닐라와 민트 향 등이 복합적이며, 과실미와 오크의 느낌이 부드럽고 우아하다. 적당한 무게와 구조감으로 바로 마시기도 좋지만 10~15년 묵혀도 될 정도로 숙성잠재력이 있다.

'캔달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카베르네 소비뇽'은 미국 캘리포니아 카버네 소비뇽 품종의 표본같은 와인이다. 검은 과실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며, 탄닌은 부드러우면서 풍부하다. 불고기 같

은 양념 육류와 마셔도 밀리지 않는다. 추석 선물로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이다.

'몬테스 퍼플 앤젤'은 몬테스의 와인 가운데 최상위인 아이콘 시리즈다. 블루베리와 자두, 향신료향이 어우러지며, 좋은 카르메네르담게 탄닌은 농밀하고 부드럽다. 고기는 물론 한식과 두루 마시기도 좋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과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는 칠레 와인 1865의 프리미엄 라인이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올드 바인'은 평균 수령 70년 이상의 포도나무에서 재배한 포도만으로 만들었다. 검붉은 과실 풍미에 흑후추 등 향신료 풍미가 인상적이다.

'1865 셀렉티드 콜렉션 데저트 밸리 시라'는 시라 품종으로는 칠레에서 프리미엄 산지로 꼽히는 엘퀴 밸리에서 만들었다. 향신료와 구운 육류 풍미, 올리브 등 향이 복합적이고, 우아한 탄닌과 구조감, 균형을 느낄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 블랙핑크·임영웅 '덕' ... CJ 4DPLEX, 지난달 최고 실적

역대 최고실적 4330만 달러 기록  
공연 실황 콘텐츠 기반 성과 기여

CJ CGV 자회사 CJ 4DPLEX가 7월에 이어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CJ 4DPLEX는 글로벌 박스오피스 기준 8월 역대 최고 실적인 43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이다. 영화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스크린X, 4DX의 성장과 공연 실황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라인업 다각화가 성과에 기여했다.

스크린X와 4DX의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는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한 1310만 달러를 기록했다. '데드풀과 울버린', '에이리언: 리볼루션' 등 8월 주요 상영작이 호실적을 거둔 영향이다. 또한, 지난 7월 북미에서 4DX 흥행에



대만 Showtime 극장에 설치된 ScreenX. /CJ CGV

일조한 '트위스터스'가 8월 국내 개봉해 '반드시 4DX로 봐야 하는 영화'로 입소문을 탔고, '트위스터스' 국내 전체 관객 수의 27%에 해당하는 16만명의 관객이 4DX로 관람했다.

CJ 4DPLEX가 제작·배급해 선보이고 있는 공연 실황 콘텐츠도 스크린X 열풍을 일으키며 최고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지난 7월 31일 개봉한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인 시네마'와 8월 14일 개봉한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 투 시네마'는 해외에서 스크린X로 열린 호응을 얻었다. 대만에서는 스크린X로 각각 47%와 69%의 높은 객석률을 기록했다. 8월 28일 스크린X 포맷으로 개봉한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도 8월 역대 최대 박스오피스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 108개국 4200여개 스크린에서 2D, 스크린X, 4DX, ULTRA 4DX로 개봉한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 인 시네마'는 9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걸그룹 콘서트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며 북미, 멕시코, 프랑스, 태국, 베트남 등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

CJ 4DPLEX는 7월과 8월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실적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주차 기준 3분기 박스오피스 실적은 1억 달러를 기록해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인 2019년 3분기 실적 9740만 달러를 넘어섰다. CJ 4DPLEX가 9월 특별관에서 선보이는 기대작은 '비틀즈 비틀즈', '베터2', '트랜스포머 ON E', '태양: 티와이 트랙 인 시네마'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제주 첫 매장 '러쉬 제주점' 오픈. /러쉬코리아

## 러쉬코리아 자연친화 '제주점' 오픈

러쉬코리아가 제주도 서귀포시 산방로에 '러쉬 제주점'을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에 위치한 '러쉬 제주점'은 러쉬코리아가 선보이는 제주 지역 첫 번째 매장으로 약 122㎡(37평) 규모이다.

제주 지역이 가진 고유한 정취와 특색을 담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재활용 플라스틱과 식물 등 지속가능한 자원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계 공존을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러쉬 제주점' 매장 벽체와 가구는 기존 러쉬 매장 설계에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제작, 제주 현무암과 유사한 질감으로 구현했다. 고객에게 제품 체험 기회와 개인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간인 '데모존'을 야외에 배치해 산방산 등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제품을 사용해 보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브리즘, 인종별 맞춤형 아이웨어 설계

한국인·백인 등 얼굴 데이터 분석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이 인종별 고객의 얼굴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값을 발표했다.

브리즘은 자사 고객 중 한국인, 백인, 흑인의 얼굴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인종별로 유의미한 얼굴 형태 차이를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리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외 브리즘 매장을 방문한 한국인 고객 2만3000여 명과 백인 및 흑인 고객 410여 명의 얼굴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통되는 아이웨어가 백인의 얼굴에 맞게 제작돼 한국인 얼굴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으나 이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된 적은 없었다. 이에 처음으로 개별 고객의 얼굴 형태를 분석해 인종별 차이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게 브리즘 측의 설명이다.

브리즘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과 백인의 얼굴 형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콧등 높이는 한국인과 백인 사이에 평균 9mm 넘게 차이가 났으며 얼굴 너비도 각각 평균 158mm와 152mm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과 흑인의 얼굴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미간 너비와 코 기둥 너비는 1mm에서 2mm 내외로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前 트럼프 안보보좌관 “韓 등 동맹국이 미국기업 불공정 대우”  
▲기세 오른 민주당 “트럼프 인지검사”  
... 공화당 내부 ‘좌절감’ /사진 뉴시스

▲日고이즈미 前총리, 40대 아들 총재選 출마에 “아직 이르지만 응원한다”  
▲대만 대륙위 “中 ‘독립분자 처벌’로 대만 주민 위협하는 행위 중단” 요구



▲韓, IPEF 회원국 공급망 위기에 긴급회의 소집... 합동 모의훈련  
▲이스라엘군, 가자 유엔 학교·민가 폭격... 적어도 34명 사망 /사진 뉴시스